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지난 9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리조트에서 9월 3일 개최되는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역사상 최초의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장관들과 청와대 비서관 집원이 참석하였다.

사상 최초로 당정청(黨政靑) 전원회의를 열게 된 배경은 문 대통령의 인사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의 엄중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고자 다짐하는 자리였다. 최연령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안회정 사건은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고 국민 대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무죄' 법원 판결이 나오자 많은 여성단체들과 국민들이 '안회정이 무죄면 사법부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등의 집회를 가졌다.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기택 시연회에도 참석하는 등 무려 1억 번이 넘는 대선 댓글 작업에 공모했다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기소되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하위법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특검 사상 최초로 허 특검검사는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정치권

의 지나친 개입에 강한 유감을 남기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불러서 빚속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좋아도 구두 닦는 구두 미화원은 좋아하지 않는다. 세상이 모든 일이 빛과 그늘이 있다. 어떤 정책도 진선(盡善) 진미(盡美)한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의 하나의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향은 맞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 논란은 많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수백 년에 걸친 민주화와 산업화를 단기간의 압축성장으로 이룩한 부작용으로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민생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언제나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적대감과 대결의식 고치로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통로가 막히게 된 것만으로도 지난 100년 이래로 이념적·박근혜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에서 180도 전환하여 적극적인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통일정책으로 높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남북관계도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비핵화와 정진선언이라는 고비를 두고 미북 관계가 긴장상태가 되어 있다.

9월 5일, 지난 3월 방북했던 정 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을 다시 대북 특사단으로 보내서 3차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 긴장을 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중으로 개성공단 내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시험 운행도 휴전선 통과를 반대하여 무산시키는 등 남북관계 진전을 반가워하지 않는 미국의 존재와 역할을 우리 국민들은 곱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다'는 선언과 합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에서도 우리민족끼리의 '자유,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원칙을 합의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민족과 진

세계에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지지율이든 무엇이든 이 세상에 불변의 고정된 것은 없지만,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기초하여 성립하고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 동향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근본적 변화의 시기, 대전환기에 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인된다. 당정청이 연합하여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호소는 촛불민심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의 불의(不義)의 시대에 종언(終焉)을 고하고, 국민이 자기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다운 나라, 불평등과 양극화가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힘없는 민중들의 피눈물어린 간절함을 실천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

민약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한없는 절망과 비탄(悲嘆)의 강물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촛불민심을 실천하는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뜨겁게 응원한다.

社說

가을철 재난사고 주의해야

행정안전부는 9월에 중점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농기계·등산 관련 사고와 태풍, 호우, 지진을 선정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매달 중점적으로 관리할 재난유형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9월에는 농작물 수확이 시작되면서 추락, 전도, 끼임 같은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9월에는 농기계 사고로 1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농기계로 경사로나 급커브길 좁은 농로를 지날 때는 천천히 이동하고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등산사고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5년간 9월에 4천719건 실족과 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가 발생했다. 단풍 절정기인 10월 다음으로 등산사고가 잦은 달이다. 산행 전에는 가고자 하는 산의 날씨와 등산로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준비를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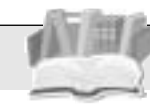
자연재해 중에서는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매년 평균 5개의 태풍이 9월에 발생해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44명 중 24명이 9월에 발생했다. 2010년 큰 피해를 준 태풍 '콘파스'도 9월에 발생했다.

8월말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 이어 9월에도 호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9월에 9번 호우가 발생해 670억원의 재산피해, 2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2010년에는 9월21일 서울에 2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광화문 일대가 침수됐다.

정부는 가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踐土會盟

踐土會盟

▷ 뜻: 진(晉)나라 문공(文公)이 제후(諸侯)를 천토(踐土)에 모아, 주(周)나라의 천자(天子)를 공경(恭敬)하고 조공(朝貢)할 것을 맹세(盟誓)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으로 여성안전 분위기 확산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담당경찰이 지난 13일부터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등의 유통플랫폼 역할을 해온 웹하드, 음란사

이트, 커뮤니티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이러한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디지털장사 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같이 추진하여 엄정수사 할 방침이다.

담당경찰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조장행위 등의 단

속은 물론,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단속, 피해자보호 등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였다.

담당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관련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내사 착수하는 등 사이버성폭력 원천차단을 위한 수사를 진행 할 것

이다.

또한, 특별단속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요청하고, 불법촬영물 원본을 압수·폐기하여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이 지속해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장규 / 담양경찰서 경사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김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논설실장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